

# 동맹압박 안 통하고 내부이견... '이란출구' 못찾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불만과 실망감을 가득 담아 올린 SNS 게시물에는 역설적으로 이란 전쟁의 출구를 좀처럼 찾지 못하는 난처한 처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군의 군사작전으로 이란이 초토화돼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했지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동맹 압박' 카드마저 제대로 통하지 않는 데 대한 좌절감이 게시물에 그대로 묻어 난 것이다.

3주 차에 접어든 이란 전쟁에 동맹을 끌어들이며 미국의 부담을 줄여 보려던 구상이 만만치 않은 반대에 부딪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역할 분담'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부풀린 것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이란 전쟁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데다 출구마저 찾기 어려운 답답함이 누적됐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동맹 압박 카드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자극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때로 적보다 동맹이 더 나쁘다'는 인식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고율관세를 내세워 동맹을 거세게 압박했고 대부분의 국가가 더 큰 불이익을 우려해 절충점 모색에 응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이란 지상군 파병 문제가 가진 딜레마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동맹국들의 고민을



16일(현지시간) 두바이 국제공항 근처의 유류저장고가 이란의 공격을 받아 불이 붙고 연기와 화염이 치솟는 모습. 연합뉴스

**'호르무즈 파병 거부' 속출에 분노... "도움 필요 없다" 불만**

**'트럼프' 대테러 수장 '전쟁 반대' 사표로 지지층 내 균열**

목도하고 있다.

이번 전쟁의 제3국 입장에서는 대이란 군사작전에 직접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해도 이란의 기뢰 부설로 안전을 담보하기 힘든 이른바 '실상 구역'에 군함을 파견하는 것은 자국 군인의 인명 피해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불리 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이

공개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힌 배경으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동맹관계 관리가 각국의 안보에 중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목표조차 뚜렷이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발을 담갔다 중동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

동맹과의 충분한 상의 없이 전쟁을 시작해놓고 위험한 뒷감당은 동맹국을 끌어

들이는 것이냐는 비판 여론도 각국에 존재한다. 유럽이나 중동 국가들에 비해 이란발 위협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한국과 일본 등은 신중한 태세를 유지해왔다.

동맹의 지원사격도 확보하지 못한 마당에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대테러기관 수장이 이란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의를 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진영 내 균열이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조 켈트 미국가대테러센터(NCTC) 국장은 이날 양심상 이란과의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는 사임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 중 이란 전쟁에 반대해 직을 내던진 첫 사례다. 연합뉴스

## 페루 총리, 취임 21일 만에 전격 사임

대선 '적신호'...후임 총리로 국방부 장관 아로요 임명

짙은 대통령 교체로 정국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페루에서 이번엔 총리가 전격 사임했다.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나온 사퇴여서 페루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

페루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데니세 미라에스 페루 총리가 전격 사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헌신해 온 미라에스 총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으나 사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진 않았다.

페루 안디나통신은 18일 예정된 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사임한 것으로 분석했다. 페루에선 총리로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미라에스 총리는 취임 21일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호세 발카사르 임시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달 24일 총리로 발탁됐다.

총리의 사임으로 내각도 줄사퇴하게 됐다. 페루 헌법에 의하면 총리가 사임하면 18명의 장관도 총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발카사르 임시 대통령은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내각 전체를 새로 짜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

페루 대통령실은 미라에스 총리의 후임으로 현 국방부 장관인 루이스 엔리케 아로요를 새 총리로 지명했다. 경제장관으로는 로돌프 아쿠나를, 법무장관으로는 루이스 엔리케 히메네스 보라를 새롭게 임명하는 등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페루의 정치 불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대통령이 8번이나 바뀌는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현재 페루 의회는 확실한 다수당이 없이 여러 세력으로 파편화돼 있어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연합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기 쉬운 구조로 돼 있다. 페루에선 한국과는 달리 헌법재판소

판결을 거치지 않고도 의회의 표결만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페루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선은 오는 4월 12일 치러진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오는 6월에 1.

2위간 결선 투표를 통해 차기 대통령을 뽑는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연합뉴스

#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